

# 안전한 양식장 인증 시행

###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위해 양식장 총 1032개소 대상

전북도가 도내 수산물 양식장에 대해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추진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내 생산단계 양식장 총 1,032개소(해면 266, 내수면 766)를 대상으로,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한 양식장은 '전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에서 참여 어가를 선정 후 3년 동안,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전북도가 인증한 양식장을 말한다.

도는 2024년 20개소, 2025년 30개소, 2026년 50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소는 안전한 양식장의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제 4807호, 2020.8.14.)와 '전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174호, 2021.9.3.)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전북도 안전한 양식장 관리위원회 구성, 안전한 양식장 신청 자격 및 절차,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받은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한 양식산물 생산에 필요한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및 수산물 질병 예방 등 지원을 확대하고, 추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미인중

양식장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양식장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양식어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참여 신청서, 양식업 면허, 허가 또는 내수면어업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을 구비해 수산기술연구소(수산물안전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연구소는 접수 여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안전한 양식장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활용해 도내 수산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전북하나센터' 위탁 운영기관 공모

### 11월 10일까지 도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대상 신청 받아

전북도가 '전북도 북한이탈주민(하나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기존 '전북하나센터' 운영 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도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신청 받는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3년이다.

2022년도 기준 1억9천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도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하나민)과 신규 전입자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기반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 선정은 도의 현장실사를 포함한 1차 심사와 통일부의 종합심사, 업무협약 체결 등을 거친다.

오는 12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누리집의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하나민)은 통일한국의 미

래를 여는 씨앗이자, 소중한 우리 전북도민이다"며 "남한 지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는 국내 북한이탈주민(하나민) 가운데 약 1.6%인 544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지역적응센터인 전북하나센터를 통해 정착도움, 초기집중교육, 사례관리, 취업지원, 지역적응지원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하나민)의 지역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전진협 전북도회,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위해 동부건설 본사 방문

전라북도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직무대행 김동수)는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건설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다수 참여와 지역자재·장비 사용을 제고할 건의하기 위해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동부건설은 현재 도내에서 'JB금융지주 통합연수원 신축공사'와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전주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 등 대형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퍼트 브랜드인 '센트레빌'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과 협회는 동부건설 본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다수참여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를 총괄하는 나혜수 과장이 동행해 해당 현장에서의 도내 업체 참여를 강력히 건의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나혜수 과장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불황에 코로나19의 장기화까지 겹쳐 도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놓

일 만큼 위기의 상황"이라며 "도내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대형건설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설장비·자재 소비로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힘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도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도내 업체의 공사 참여율을 높여서 가뜰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동부건설 업무담당자는 "추후 사업계획에 전라북도과 협회의 건의를 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와 재단법인 헤퍼코리아(대표 이해원)가 전북도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 협력

### 전북도국제교류센터-재단법인 헤퍼코리아,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 이하 센터)와 재단법인 헤퍼코리아(대표 이해원)가 전북도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센터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법인 헤퍼코리아'는 1944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개발 비영리 기관인 헤퍼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로, 빈곤국가의 농가에 가축과 농업·목축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지속

가능한 생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전북도가 참여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공동발굴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협업, △기타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기반 공고화에 필요한 분야 내 협업방안 강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도는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농생명 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발굴해 나

가야 할 것이다"며 "헤퍼코리아와의 협약을 통해 전북도 농업·농생명 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연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전북도의 우호협력·교류 지역인 베트남 다락성, 라오스 투앙프라방 등을 대상으로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북도의 개발협력사업 외연을 지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국제교류 인프라 및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협력사업 공동 발굴 및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포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 이하 연구소)가 28일 전북도 여성가족 미래비전 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미래비전 설정에 따라 3대 정책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제안 한 바 있는데 후속과제로서 세부과제와 핵심사업을 발굴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 설정된 여성·가족 미래비전은 '여성이 만들어가는 인권, 존엄, 소통의 풍요로운 전북'이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의 여성정책관계자, 관련 전문가, 현장관계자, 도의회 의원 등 다수가 참여했다.

국주영은 도의원(농산경제지원위원회)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의 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직업전환이 이뤄지게 하는 정책과제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부서에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도로교통과, 주택건축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돼야 한다"며 "또 추진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담당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선희(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은 "여성·가족분야의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도의 인재육성과 평생교육기관에 성평등교육과 성평등 운영 매뉴얼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인 소장은 "전북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미래비전 전략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북여성계와 도의회,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 영 건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